

# 성인취업자의 여가시간 결정요인의 성차 분석

김 외 숙 (방송대학 가정학과 교수)

여가와 젠더의 관계는 여가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주제로서 최근에는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도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은 성별보다 유급노동여부 및 유급노동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점에서 여가와 젠더의 관계를 세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여가시간의 차이 및 여가시간의 결정요인,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의 성차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취업자의 여가시간의 성차를 밝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4년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취업자 9,384명과 여성취업자 6,811명의 설문지 및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행동은 평일의 '주행동'으로 한정하였고, 여가에 포함한 활동 항목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 이상 두 항목과 관련된 '이동'이었다.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t-test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된 변수는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유무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취업자의 여가시간은 유의한 수준에서 성차를 보이며, 남성은 여성보다 평일평균 39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다. 이는 11분의 차이를 보인 미취업자를 포함한 성인전체의 성차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이다.

둘째, 관련변수가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여성의 경우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데 비해, 여성은 남성의 경우보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다. 결혼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여가시간을 더 감소시키고,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더 줄어든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성인취업자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미미하고, 양성 모두에게 취업시간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이 연구는 성인취업자의 여가시간에 존재하는 성차를 수량화하고, 관련변수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그 동안의 변화를 밝히는 연구 및 여가시간의 성차를 축소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